BR5926 한국의 인구 노령화 문제 15-11-14

2016년 중에 한국의 노동인구는 최고치인 3,70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일단 최고치에 달하고 나면 그후 10년 동안에 노동인구가 1.3% 감소하게 된다고 한국의 경제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일본을 닮아 간다고 경제연구원은 언급했습니다. 2008년에 일본의 인구는 최고에 달했고 그후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구는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1995년에 노동인구는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13명 중의 한 명이 65세 이상인데 이 노년층 인구는 2007년에 비하여 10%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산아 율은 여성 한명 당 1.2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런 숫자는 1.4명인 일본보다 낮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여성 한 명당 산아율이 2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런던 소재 인구 조사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산아율에 있어서 96개 국 가운데 6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꼴찌에서 세번째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최고 10위 권에 들어 있습니다. 공동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산아율이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 입니다. 홍콩샹하이 은행의 경제연구원인 조셉 인칼카테라 (Joseph Incalcaterra)는 주장합니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국 경제의 활기를 낮추고 수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내수도 무기력화 한다.” 한국은 2014년 부터 2018년 사이에 연평균 3.6%의 경제 성장을 예측했지만 그런 성장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국의 내수는 국내 총생산량 (GDP)의 50%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노령화는 내수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라고 인칼카테라씨는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업율은 4%라고 하지만 15세에서 19세 층의 실업율은 2012년에 7.7%에 달했습니다. 또 하나의 노동인구의 문제는 한국의 고용인구 중 약 25%는 임시직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구직은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고 젊은 층은 임시직에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 피 모건 (J.P. Morgan) 증권사의 전략연구원인 애드리언 모왓 (Adrian Mowat)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20대와 30대의 초반에 속한 인구층이 일자리 찾기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일본처럼 인구 노령화로 인하여 경제가 약화하는 현상을 피하려면 노동법을 변경하여 대기업들이 젊은 층의 취업지망생들을 영구직에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기 고용자 즉 선임직원을 우대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근무성과에 따라 승진과 면직과 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역시 언급했습니다. 노동법을 변경해야 하되 근무 제도가 가족제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란한 가족관계를 해치는 군무 시간제를 친 가족제도로 변경해야 결혼도 장려되고 산아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위의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잔업, 너무 자주 있는 회식, 등은 단란한 가족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